

"DMZ 평화관광, 이달 중순부터 다시 열립니다"

15일 전후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 재개 검토

등록 2020-09-02 15:47:19



【서울=뉴스시스】제3땅굴로 내려가는 입구.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파주=뉴스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중단된 경기 파주지역 DMZ 평화관광이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개될 전망이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등 DMZ 평화관광 코스를 관할하는 육군 1사단과 협의를 갖고 관광 재개에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방역당국의 요구에 따라 ASF 감염멧돼지 제거 및 울타리 설치, 관광객 방역 등에 ASF 방역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각 유관부처의 현장점검까지 마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 등 DMZ 평화관광을 재개하면서 그동안 임시 운영된 임진각 평화곤돌라도 정상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상화 시기는 오는 7일이 유력한 상태로, ASF 방역 문제로 그동안 하차하지 못했던 민통선 지역 상 부정류장 하차도 가능해진다.

상부정류장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탐방로와 전망대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전망데크에서 임진각과 임진강 독개다리, 경의선 철교 등 장단반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과 연계되는 반환 미군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 시설은 경기도가 운영을 맡고 있어 연계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숙박 체험 등 기존 프로그램 대신 전시 공간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지만, 관광 재개가 오랜 기간 ASF로 고통을 받은 파주 북부 주민들에게 조금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DMZ 평화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